

한순간에 찾아온 동장군... 패션업계 秋冬 손님맞이 '분주'

추석 연휴 이후 기온 급격히 하락
업계, 기능성 의류 앞 다투어 출시
따스한 감성 채운 겨울 화보물도



플리스 소재에 구스다운을 적용한 K2 '비송(BICHON) 플리스 다운' /K2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급격히 떨어진 기온에 패션업계는 준비해뒀던 기능성 가을 및 겨울 의류를 발빠르게 내놓고 있다.

올해는 계절을 타지 않는 '시즌리스(사계절 내내 입을 수 있는)' 패션이 유행인 데다, 지난 여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실내 생활을 주로 하던 소비자들 사이에서 쌀쌀해진 날씨에 월동 준비에 돌입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먼저 아웃도어 브랜드 K2는 플리스 소재에 구스다운을 적용해 따뜻함을 강조한 리버시블 스타일의 '비송(BICHON) 플리스 다운'을 선보였다고 5일 밝혔다.

굽슬거리는 털이 특징인 프랑스대표

견종 비송 프리제에서 영감을 얻은 '비송 플리스 다운'은 겉감에는 친환경 리사이클 플리스 소재를, 안감에 구스다운 충전재를 사용해 플리스 또는 다운으로 두 가지 스타일을 리버시블(양면) 형태로 착용 가능한 제품이다.



써스데이 아일랜드 2020 FW 겨울 캠페인 화보. /써스데이 아일랜드

플리스 면에는 라미네이팅 필름을 덧대어 찬바람을 막아주는 등 방풍 기능을 업그레이드 했고, 구스다운 면에는 2레이어 소재를 적용해 비나 눈이 올 때 걱정 없이 착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이양업 K2 상품기획팀 부장은 "비송 플리스 다운' 제품이 트렌디하고 캐주얼한 디자인에 보온 기능도 뛰어나 올겨울 사랑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내 유아동복기업 한세드림의 아메리칸키즈 데님 브랜드 리바이스키즈는 이날 2020 FW 시즌 콘셉트 '코지 업(COZY UP)' 라인을 확대 출시한다고 전했다.

리바이스키즈 '코지 업' 라인은 가을, 겨울을 맞아 편안하면서도 포근하게 입을 수 있는 아이템들로 구성됐으며 후디, 팬츠, 스웨터 등 많은 제품군을 자랑한다.

또다른 유아동 패션 브랜드 알로앤루·알폰소도 디자인과 소재를 다양화한 경량 아우터를 대거 출시했다. 여기에 감각적인 디자인과 컬러를 통해 스타일을 더하기도 했다. 그중 '폭삭폭삭 더블 다운점퍼'는 사각 퀵팅 패턴과 파스텔 톤의 핑크와 퍼플 컬러 배색, 목도리가

더해진 머트롭고 RDS(Responsible Down Standard) 인증을 받은 오리털 점퍼로 부드럽고 산뜻하며 체온 유지에도 탁월하다.

제로투세븐 관계자는 "가볍고 따뜻한 경량 아우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따스한 감성이 느껴지는 겨울 화보를 이미 내놓은 업체도 있다. 지엔코의 '써스데이 아일랜드(Thursday Island)'는 뮤즈 공효진과 함께한 올겨울 캠페인 화보를 공개했다. 해당 화보는 써스데이 아일랜드의 시그니처 아이템인 니트, 원피스와 함께 브랜드 특유의 풍부한 컬러와 자연러운 고급 소재로 완성된 에코퍼 컬렉션으로 이루어져 있다.

써스데이 아일랜드와 공효진의 2020 FW 겨울 캠페인 아이템은 공식 홈페이지나 SNS 계정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셀리드-LG화학, 코로나 백신 개발 맞손

셀리드 백신, 높은 중화능력 확인
생산 협력체계 구축·상업화 촉진



셀리드-LG화학, 코로나 백신 개발 위한 MOU 체결. /LG화학

셀리드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생산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과, 상업화 촉진을 위해 LG화학과의 상호협력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항암면역치료백신 전문기업 셀리드는 자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AdCLD-Cov19'의 개발 및 대량생산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과 상업화 촉진을 위해 LG화학과의 상호협력 협약을 LG화학 마곡R&D캠퍼스에서 5일 맺었다.

셀리드는 지난 4월 'AdCLD-Cov19' 백신 개발을 개시한 이후, 연구용 'AdCLD-Cov19' 백신 후보물질을 제작했으며 영장류 시험결과 광복할 만한

수준의 항원특이적 항체반응과 생성된 항체의 매우 높은 수준의 바이러스 중화능력이 확인됐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2020년도 4차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변종바이러스대응 원천기술개발과제에 지원해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따라서 아데노바이러스

벡터에 기반한 코로나19 예방백신 후보물질을 임상에 진입시키고, 신·변종바이러스대응 원천기술을 계속 개발, 최근 연이어 등장하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예방백신 후보물질을 확보할 계획이다.

LG화학은 1996년 국내 최초로 유전자 재조합 B형간염 백신 '유박스'로 WHO PQ 승인을 받은 이래 뛰어난 연구개발과 생산 역량을 활용, 2016년엔 5가 혼합백신 '유펜타'로 두 번째 WHO PQ 승인 받았다. 백신 연구개발 및 생산 역량을 인정받아 2017년과 2019년 빌게이츠재단으로부터 소아마비백신, 6가 혼합백신 개발 과제의 조속한 상용화를 위해 총 5290만 달러(한화 620억원)의 지원금을 받은 바 있다.

/원은미 기자

아모레퍼시픽, 윤조에센스 매출 3兆 돌파

25일까지 릴레이 프로모션 진행



설화수 윤조에센스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은 설화수의 글로벌 베스트셀러, 윤조에센스가 누적 매출액 3조원을 넘어섰다고 5일 전했다. 이는 아모레퍼시픽이 출시한 제품 중에서 최초로 달성한 기록이다.

윤조에센스는 세안 후 피부에 가장 먼저 사용하는 '퍼스트 안티에이징 에센스'로, 전세계 여성들의 피부 관리 습관을 획기적으로 바꿨다고 평가받는다. 제품의 핵심 성분인 자음액티베이터는 피부 속 숨겨진 20개의 피부장벽 인자를 깨워 스스로 힘 있게 빛나는 피부를 선사한다.

설화수 윤조에센스는 1997년 출시 이후 진화를 거듭해왔으며 고객이 10초마다 1개씩 팔리는 브랜드의 베스트 셀러이자 스테디셀러가 됐다. 제품을 10회 이상 재구매한 고객이 40만 명이 넘고, 중국·미국·호주·인도 등 설화수의 글로벌 시장 확대와 함께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로 2014년에는 제품 누적 매출액 1조원을 달성했고, 2017년 2조원에 이어 이번에 누적 매출액 3조원 돌파를 이뤄냈다. 출시 후 판매한 제품은 3500만 병이 넘는다.

설화수는 윤조에센스 누적 매출액 3조원 달성을 기념해 오는 25일까지 롯데ON·SSG닷컴·AK몰·GS SHOP·현대Hmall에서 제품 구매 고객 대상 릴레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해당 온라인 쇼핑몰별 이벤트 일정에 윤조에센스(90mL)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추가로 윤조에센스 30mL 제품을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원은미 기자

코오롱스포츠, 'BT21' 캐릭터 자켓 출시

코야 등 7개 캐릭터 디자인 적용



코오롱스포츠 BT21 플리스제킷 상품컷. /코오롱인더스트리FnC

코오롱스포츠가 라이프렌즈의 글로벌 밀레니얼 캐릭터 BT21을 담은 플리스제킷 'BT21 코오롱스포츠 플리스'를 출시했다고 5일 전했다.

BT21은 라인프렌즈의 프렌즈 크리에이터스 첫 프로젝트로 탄생한 캐릭터로, 코오롱스포츠는 지난 2019FW시즌에 BT21과 함께 'BT21 플리스' 7종을 선보인 바 있다. 당시 평균 판매율 92%에 이르는 등 높은 인기에 힘입어 이번 시즌 새롭게 'BT21 코오롱스포츠 플리스'를 내놓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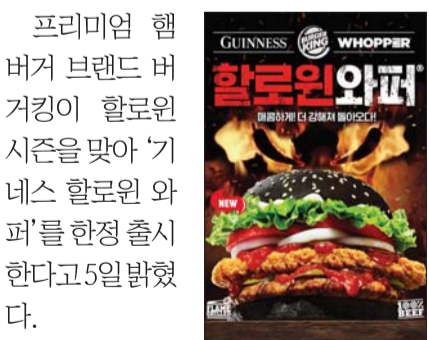
'BT21 코오롱스포츠 플리스'는 코야, 알제이, 슈키, 망, 치미, 타타, 쿠키 총 7개 캐릭터를 디자인 요소로 적용했다. 캐주얼한 후드는 일체형으로 각각의 BT21의 캐릭터를 자수로 패치했으며,

왼쪽 소매에 BT21과 코오롱스포츠의 로고를 왜오펜으로 담아 BT21 코오롱스포츠 플리스만의 매력을 표현했다. 포근한 느낌의 플리스 소재와 BT21 캐릭터가 만나 한층 더 귀여운 룩을 완성할 수 있게 한다.

남녀공용 XS, S, M 세 가지 사이즈로 출시하였으며 퍼플컬러는 '치미', 블랙은 '타타', '코야', 화이트컬러는 '쿠키'와 '알제이', 브라운은 '슈키', 그린컬러는 '망' 캐릭터다. 가격은 모두 10만8000원이다.

/원은미 기자

버거킹 기네스 할로윈 와퍼 한정판



프리미엄 햄 버거 브랜드 버거킹이 할로윈 시즌을 맞아 '기네스 할로윈 와퍼'를 한정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기네스 할로윈 와퍼'는 버거킹이 지난 8월 세계 1위 흑맥주 브랜드 기네스와 협업을 통해 출시한 프리미엄 버거 '기네스 와퍼'의 할로윈 시즌 한정판 버전이다. 할라피뇨, 핫페퍼 칠리소스를 넣어 매콤함을 더했으며, 바삭한 통치킨패티를 가미해 직화 방식(Flame-grilled)으로 구운 100% 순쇠고기 패티와 함께 두 가지 맛과 식감을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엔지켐생명과학, 美 PRA와 임상계약

EC-18 임상 2상 본격화

엔지켐생명과학은 현지시각으로 지난 14일 글로벌 최상위 그룹 임상시험 수탁기관(CRO: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여러 곳이 참여한 선정 평가 결과, 미국내 COVID-19 백신·치료제 임상 수탁권을 리드하고 있는 PRA(PRA Health Sciences)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엔지켐생명과학은 신속한 임상 진행을 위해 글로벌 상위 10위 안에 포진한 CRO들의 제안만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상시험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CRO가 확보한 임상사이트 수와 임

상연구 수행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5200개 이상의 임상사이트를 보유한 PRA가 CRO로 선정됐다는 소식은 COVID-19 임상의 순조로운 출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번 CRO 선정이 있기까지 엔지켐생명과학에서는 코로나 19에 대한 임상 경험, 참가자의 전문성과 역량, 임상 사이트 숫자 및 환자 모집 속도 등을 세밀하게 검토했다.

다가오는 10월 6일(현지 기준), PRA와 임상개시 미팅을 시작으로 EC-18의 COVID-19 임상 2상 시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원은미 기자